

원산 도명 스님은…1964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1964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68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과 동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 극락암 · 봉암사 · 칠불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직지사 황악학림에서 관응 스님을 모시고 경학을 연찬해 전강했다. 직지사 승가대학 강주,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등을 맡아 후학을 양성했다. 1995년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종단 승가교육 초석을 다졌다. 1998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통도사 백련암에서 3년간 무문관 결사를 하고 2008년 만일염불회를 창설했다. 2011년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를 맡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사격을 높이는 데 힘썼다. 2021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하고 2025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현재 부산 하안연꽃절 회주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 법어집 〈허공에 핀 꽃〉, 〈허공처럼 살아라〉 등이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 “갈등의 시대, 대각 정신 회복할 때”

〈大覺〉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도명 대종사

양산 통도사=여수령 기자

양산 통도사 백련암에는 수령 200년 가까운 무환자(無患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둥글고 단단한 열매는 염주 재료로 쓰인다. 이름 그대로 ‘근심이 없고 병이 없다’는 뜻을 지닌 이 나무는, 수행자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도량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간다. 세상은 갈등과 전쟁, 경쟁과 불안으로 요동치고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무환(無患)’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8일,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도명 대종사를 만나 가르침을 청했다. 백련암에서 만난 스님은 한국불교의 과제와 은사 경봉 스님의 가르침, 수행자의 본분과 지도자의 덕목까지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이 깊어질수록 “허공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각(大覺)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최근 의원 선서를 마친 스님은 “원로라고 해서 특별한 책임과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임제록〉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스스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되새기던 스님의 말은 자연스럽게 은사 경봉 스님의 삶으로 이어졌다. 경봉문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산 스님은 법문집 간행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은사의 가르침을 잇고 있다. 스님에게 경봉 스님은 깨달음의 길을 몸소 보여준 수행자의 표상이었다.

“경봉 큰스님은 열여섯에 출가해 강원과 선방 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총명하셨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요. 통도사 소임도 ‘소임 살면서 언제 공부하겠느냐’며 뿌리치고 전국 선방을 다니며 정진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오랜 수행 끝에 경봉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화엄산림을 열며 다시 화두에 몰두했다. 원산 스님은 그 순간을 생생히 전했다. “밤중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다가 문득 ‘내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때 오도송을 남기셨지요.”

**아시방오물물두(我是訪吾物物頭)**
**목전즉견주인루(目前即見主人樓)**
**가가봉착무의혹(呵呵逢着無疑惑)**
**우발화광법계류(優鉢花光法界流)**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아 헤매다가**
**눈앞에 곧 주인공을 보았네**
**우습고 우습다 만나서 의혹이 없으니**
**우담바라 광명이 법계에 흐르네.**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이 도를 깨친 뒤에는 우주 전체가 그대로 도(道)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마치 자신도 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당시 극락암 법회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원산 스님은 “한 번은 3900명 가까이 모여 주먹밥을 나눠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법문은 다음 날 곧바로 인쇄돼 대중에게 배포됐고, 훗날 법문집으로 묶였다. 오늘날 통도사 화엄산림의 전통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힘으로 ‘믿음’을 꼽으며 경봉 스님의 일화를 전했다.

해제 철, 젊은 수좌 한 명이 극락암 삼소굴로 찾아가 경봉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면 제대로 믿겠느냐?” “스님 말씀인데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묻는 네가 바로 신여래(新如來), 새로운 부처니라.”

“그 수좌는 마음에 박히는 것이 있어 경봉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극락암 선방에서 정진했습니다. 만약 이 수좌가 경봉 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크게 믿었기 때문에 산철에도 선방에 앉아 정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굳건해야 공덕이 쌓이고 모든 의심과 애착이 사라지며, 마침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열반의 위없는 경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과 쉼 없는 정진을 당부한 스님은 ‘보시’의 의미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자들은 모두 보시로 살아갑니다. 의식주가 다 불자들의 보시 덕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보시보다 대도(大道)를 성취한 명안종사(明眼宗師)가 많이 나와 중생을 제도하는 보시입니다.”



은사 경봉 스님(앞)과 함께한 원산 스님.



부산 하안연꽃절 조감도.

**통도사 백련암 무환자나무의 가르침**
**경봉 스님에게 배운 ‘믿음 · 정진의 힘’**
**명안종사가 중생 제도하는 보시 절실**
**갈등 · 전쟁에 ‘허공 같은 포용’ 갖춰야**
**“수처작주 입처개진” 진실된 삶 당부**

원산 스님은 원로의원 선서를 마친 스님은 “원로라고 해서 특별한 책임과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와 종단 지도자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심(公心)’을 꼽았다.

“건강하고 공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종단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를 맡으면 절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하고, 종단을 맡으면 종단을 자기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으로 운영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삿된 욕심이나 물질에 팔려서는 안 됩니다.”

원산 스님의 법문집 〈허공에 핀 꽃〉, 〈허공처럼 살아라〉에 담긴 ‘허공’의 의미도 같은 맥락이었다.

“허공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공생대각중(空生大覺中)하니 여해일구발(如海一漚發)’이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허공조차 다 품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망상과 번뇌를 움켜쥘수록 삶은 좁아지지만, 집착을 비울수록 세계는 넓어진다는 가르침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정치적 진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다. 종교계 내부의 분열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스님은 “결국 대각(大覺)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갈등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그 갈등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허공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다시 임제 스님의 가르침을 환기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바라밀을 이루고 대자대비심을 이뤄, 인간답게 살고 부처님의 아들딸답게 사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백련암 곳곳을 안내하던 원산 스님은 무환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환자나무 열매가 수행자의 손에서 염주가 되듯, 삶의 번뇌 또한 수행과 성찰을 거쳐 지혜로 바뀔 수 있다고.

스님이 말한 ‘허공처럼 사는 삶’도 다르지 않다. 욕심과 집착을 조금씩 비우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무환(無患)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 스승의 혜안 담긴 하안연꽃절

지난해 4월 25일 첫 삽을 뜬 부산 하안연꽃절 불사에는 훗날을 내다본 은사 경봉 스님의 혜안과 그 유훈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제자 원산 스님의 원력이 새겨져 있다.

경봉 스님은 “앞으로 큰 불사를 할 때 내 글씨가 필요할 것이니 먹과 종이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혼탁한 시대에 대중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도량이 필요해질 것임을 알고, 자신의 깨달음을 담은 묵적(墨跡)을 든든한 의지처이자 무언(無言)의 격려로 남긴 것이다.

스승의 뜻을 헤아린 원산 스님은 매일 새벽 지극한 마음으로 먹을 갈아 100여 점의 휘호를 받았다. 스님에게 불사는 매일 밤 먹을 갈며 스승의 곁을 지켰던 시봉의 연장이자, 평생을 이끌어준 은사의 가르침을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회향하려는 수행자의 마지막 보은(報恩)이다.

하안연꽃절은 천일 관음기도로 불사를 시작했다. 신축될 기념관에는 스승이 남긴 자비의 묵적들이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여러 어려움으로 오직 십시일반의 정성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 아직 완공의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스승의 자비로운 유산이 도심 속 안식처로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동참이 필요하다.

■ 경봉 대선사(1892~1982)

‘영축산 도인’이자 ‘통도사 군자(君子)’로 칭송받는 경봉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이다. 1892년 밀양에서 태어나 16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27년 화엄산림법회 도중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통도사 주지, 불교전문강원 원장, 극락호국선원 조실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헌신했다. 극락암 ‘삼소굴(三笑窟)’에 주석하며 90세 고령에도 법좌에 오르며 평생 참된 수행자의 본분을 몸소 실천했다. 하성미 기자